

한전, 나주혁신도시에 '에너지 밸리' 조성

조환익 사장 "미국 실리콘 밸리처럼 만들겠다"

24일 조성안 발표... 에너지 기업·연구기관 유치

오는 8월부터 나주로 이전을 시작하는 한국전력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도시)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비슷한 '에너지 밸리'를 조성한다. 국내 최대 에너지 기업이 혁신도시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만큼, 국내 산업계의 '미래 먹거리'가 나주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전은 17일 "연초부터 추진해 온 '빛가람 도시 에너지 밸리' 조성 방안을 이르면 24일께 발표할 예정"이라

며 "구체적인 조성안이 나오면 한전 이전과 공동 추진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환익 한전 사장은 지난 13일 서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전 본사가 이전하는 나주를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비슷한 '에너지 밸리'로 조성하겠다"며 "정부 시책에 따라 단순히 본사를 옮기는 차원이 아니라 도요자동차가 도요타시(市)를 자동차 타운으로 만들었듯 나주를 에너지 허브로 만들겠다"고 강

조환 바 있다. 조 사장의 발언은 나주 이전을 앞둔 한전을 비롯, 전력거래소와 한전 KPS, 한전KDN 등 총 4개 기관 외에도 에너지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전은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한전 및 산하 3개 기관, 3343명의 인원을 오는 11월 동반이전할 계획이다.

1425명이 근무하게 될 한전 신사옥은 1월 기준 72%의 공정률을 보이며 외벽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며 오는 8월 완공된다. 전력설비·정비 전 문화사인 한전KPS는 400여원을 투입, 나주 다도면에 한전KPS R&D 컴

플렉스(Complex)를 건립하기 위해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또 경기도 분당의 한전KPS 기술연구원도 오는 10월께 나주 혁신도시로 동반 이전 하게 된다.

발전에서부터 급전과 송·변전, 배전, 판매를 맡고 있는 한전KDN도 본사를 포함, 경기도 의왕에 있는 한전 KDN 전력 IT연구원을 본사 이전에 맞춰 나주로 혁신도시 이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개 기관들의 전산시스템을 한데 묶을 '통합 IT센터'도 부지 안에 신축중이다. 통합 IT센터는 전국 243개 지점에 흩어져 있던 전산업무 통합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어 연면적 1만5000㎡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올 8월 완공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전이 빛가람 도시에 조성할 '에너지 밸리'는 이들 한전 기관이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중심을 잡고, 관련 기관 및 민간 기관이 모이는 국내 최대의 에너지 산업도시로 탄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건설 전남발전연구원장은 "한전이 '에너지 밸리' 조성안을 내놓는 즉시, 지역 지자체가 최대한 수용하는 한편, 주도적으로 상생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며 "에너지 밸리와 지역 대학 및 지자체가 협력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찾는 것이 지역 발전에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 유통업계 '소치 효과' 특출

밤 시간대 올림픽 경기

주류·포장식품 매출 ↑

광주 지역 유통업계가 최근 소치 동계올림픽 효과를 특출히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소치올림픽이 개막한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광주신세계 이마트에서 판매된 주류와 관련식품의 판매실적을 분석한 결과 맥주와 소주 등의 주류와 포장식품 매출이 늘어 전년동기 25% 신장률을 보였다. 특히 경기를 보면서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캔맥주의 경우 전년과 비교해 20% 가량 늘었으며 소주가 4.1%, 양주가 8% 가량 늘었다.

주류 품목과 더불어 간편 포장 음식 품목도 매출에 날개를 달았다. 광주신세계 백화점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김밥과 초밥류를 포함해 어묵 등 20여종의 간편 포장식품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무려 22% 이상 늘었다. 인기 간편 포장식품인 닭강정은 33%, 오징어 순대 29%,

즉석만두 25% 등 다수의 포장식품들이 높은 매출신장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류와 간편 포장식품들의 매출은 올림픽 경기 당일 오후와 밤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또 올림픽 개막 이후 주말 시간대별 매출동향을 분석해본 결과 오후 6시30분~8시30분 2시간 동안의 식품매장 매출이 전체 식품매장 매출의 34% 가량을 차지했으며 이는 올림픽 시즌이 아닌 경우 같은 시간대의 매출구성비가 23%인 것과 비교해 11%나 증가한 것이라는 게 광주신세계의 설명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역시 맥주와 소주 등 주류 매출이 5~10% 증가했으며 김밥·초밥류(18%)와 닭강정(24%), 육포(36%) 등 안주류의 매출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치 올림픽으로 인한 주류와 관련 식품의 매출 신장세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나주혁신도시 내달 3일

상업용지 7필지 분양

광주도시공사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상업용지 7필지(5만3029㎡)를 분양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급토지는 필지당 평균 7575㎡로 호텔, 마트,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립이 가능하다. 공급 가격은 ㎡당 133만~148만7000원이다.

신청은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 비드)에서 받고, 낙찰자는 다음달 6일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을 투찰한 사람을 선정한다.

계약은 다음달 10일까지 22일까지 도시공사 1층 고객행복센터에서 체결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공사 홈페이지(www.gmcc.co.kr)를 참고하면 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다이어트에 좋은 단호박

17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식품관에 건강식으로 만집인 단호박이 선보였다. 단호박은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이 있어 다이어트식으로 좋고, 섬유질이 풍부해 변비 해결에도 효과가 좋다. 뉴질랜드산 단호박은 1통에 4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행 본점에서 협약한 합의의 취지를 전했다.

김대욱 광주은행 노조위원장도 "JB금융안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 노조 측이 미흡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으며, 당장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JB금융이 진정성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했다고 판단되면 노조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31일 우선협상자로 확정된 JB금융은 광주은행 인수에 앞서 지난 12월부터 6주간의 광주은행 독립전산시스템유지와 독립카드사 업무유지 등 추가적으로 5개 요구안을 확정해 JB금융지주에 전달했다. 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 노조는 이들 안을 토대로 이날 오후 광주은행 본점에서 협약한 합의의 취지를

광은 노조-JB 금융 상생협약 논의 급물살

JB금융, 자율경영 보장·100%고용승계 등 제시

광은, 독립 전산시스템 유지 등 5개안 추가 요구

광주은행 인수 우선협상자로 확정된 JB(전북은행)금융지주와 광주은행 노조 간 상생협약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7일 광주은행 노조에 따르면,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분리매각을 위해

필수적인 6500억원 규모의 세금감면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20일로 연기된 가운데 JB금융과 광주은행 노조가 상생협약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협의를 벌였다. JB금융지주는 이에 앞서 지난

16일 오후 광주은행 노조측에 8개 항에 달하는 상생협약안을 제시했다. JB금융지주가 제시한 안은 BS(부산사회네트워크) 유지 및 해당지역 출신 인재 채용 ▲이억 대비 지역사회 환원율(10%) 유지 등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광주은행 노조는 17일 오전 운영회의를 갖고 광주은행만의 독립전산시스템유지와 독립카드사 업무유지 등 추가적으로 5개 요구안을 확정해 JB금융지주에 전달했다.

다. JB금융지주는 지난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부채비율 ▲100% 고용승계 원칙 ▲지역사회 네트워킹 유지 및 해당지역 출신 인재 채용 ▲이억 대비 지역사회 환원율(10%) 유지 등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광주은행 노조는 17일 오전 운영회의를 갖고 광주은행만의 독립전산시스템유지와 독립카드사 업무유지 등 추가적으로 5개 요구안을 확정해 JB금융지주에 전달했다. 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 노조는 이들 안을 토대로 이날 오후 광주은행 본점에서 협약한 합의의 취지를

| | | | |
|----------------------------|---------------------------|-------------------------------|------------------------------|
| ▲ 코스피지수 1946.36 (+6.08) | ▼ 코스닥지수 522.00 (-0.58) | ▲ 금리(국고채 3년) 2.85% (+0.01) | ▼ 원·달러 환율 1060.50원(-3.20) |
|----------------------------|---------------------------|-------------------------------|------------------------------|

그린알로에 "그린퍼맨 프로바이오-50" 출시!

살아있는 유산균 50억 CFU 프로바이오틱스로 장건강을 챙기세요.

프로바이오틱스로 지키는 **장** 건강

"그린퍼맨파이오-50" 은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 배변활동 원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5종의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된 제품입니다. 부원료로 곡류혼합효소 발효분말 과일혼합효소발효분말 비타민C, 건초효모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린알로에는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합성보존료, 합성감미료, 합성착색료가 함유되지 않은 3무제품입니다.

그린알로에

FOR YOUR HEALTH

고객상담실 080-234-6588